

빈틈 없는 방역·안전사고 예방 비상체계 가동

추석 기간 종합대책 추진
당직 의료기관·약국 지정
대청소·생활쓰레기 수거

광주 북구가 추석 명절 기간 동안 2개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된 '주민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9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22일까지를 특별 방역 주간으로 정하고 다수의 주민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 전통시장,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 방지 활동을 펼친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방역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최근 들어 수도권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방역당국은 현재 상태에서 억제하지 못할 경우 추석 연휴 인구 이동을 따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감염 전파가 일어나고 다시 수도권으로 유행이 번지는 '풍선효과'와 '역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에 북구는 철저한 방역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방역대응 비상체계를

구축해 연휴기간에도 방역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한다.
재난대책본부를 통해 연휴기간 방역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각종 안전사고와 기상변화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체계도 유지한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전담대응반을 편성해 1일 3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증상 발생 및 격리 장소 이탈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의료체계를 운영해 명절기간 차질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북구는 긴급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선별진료소(효죽공영주차장 4층)를 정상 운영하고, 1일 12명의 검체 및 행정요원을 배치한다.
또, 연휴기간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통한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자 6곳(광주·일곡·현대·희망·운암한국·해피뷰병원)의 당직 의료기관과 약국을 지정·운영한다.
북구는 교통안전대책반을 편성해 명절 당일 국립 5·18민주묘지와 영락공원 일원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할 계획이다.
일제 대청소, 노상적치물 정비와 더불어 연휴 5일 중 3일은 생활쓰레기를 수거

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이 밖에도 산발방직 상황관리반을 운영해 산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초동진화태세를 강화하며, 명절기간 생활불편신고센터를 집중 운영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인 만큼 주민과 귀성객 모두가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대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연휴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직원 210여 명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환준 기자



우체국 쇼핑물 추석 브랜드관 22일까지 '우수 상품 기획전'

광주 북구는 오는 22일까지 우체국 쇼핑물 '광주시 북구 추석 브랜드관'에서 '우수 상품 기획전'을 진행한다. 9일 밝혔다.
우수 상품 기획전은 추석을 맞아 우체국 쇼핑물에 입점해 있는 북구 소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브랜드관에서는 지역 내 16곳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생산한 천연소재 뷰티 제품을 비롯해 수제 세제, 유기농 커피, 장류, 김부각 등 42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특히 행사 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전 품목 20%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북구는 기획전을 11월 말까지 이어나갈 예정이며, 향후 연중 특별 프로모션을 통해 상품 홍보와 판로 확보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재)광주디자인진흥원과 협업을 지난 8월부터 우체국 쇼핑물에서 북구 브랜드관을 운영 중에 있다.

'아동권리 증진' 전담강사 양성

광주 북구는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부와 함께 아동 기본권 보장 및 아동친화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아동 권리 증진 전담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16일과 28일 2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아동보호정책, 아동 권리, 개인별 교육 시연, 질의응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과정을 이수한 참여자는 학교와 아동 관련 시설에서 인권 향상 교육, 인권 침해 사례 발굴 등을 하는 전담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북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사회복지·아동복지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는 우대한다.
참여 신청은 14일까지 북구청 아동복지과로 하면 되고 교육비는 무료다.
문인 북구청장은 "아동 존중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아동 권리 보호 및 기반 조성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북구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10일 구의원을 대상으로 아동 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환준 기자

호남권 유일 성별영향평가 국무총리상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등
성 평등 사회 실현 기여

광주 북구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2021년 성별영향평가제도 추진 실적 평가 결과 호남권에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수립·집행 과정 시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총 30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 실시 실적 ▲정책 개선 정도 ▲교육 및 제도화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

했다.
북구는 그동안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난 2011년과 2016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양성평등도시 조성에 노력했다.
특히 광주 최초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과 법령·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적극 실시하는 등 성 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2018년에 받은 여성친화도시 대통령상과 더불어 북구가 양성평등도시를 지향하며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평등으로 하나 되는 모두가 행복한 북구'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지난 8일 광주 북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1년 슬기로운 공직생활의 첫걸음 새내기 공무원 디딤돌 캠프에서 문인 북구청장이 신규 공무원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북구 제공

'새내기 공무원 디딤돌 캠프' 운영

광주 북구는 새내기 공무원의 공직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4회에 걸쳐 구청장과 함께하는 '새내기 공무원 디딤돌 캠프'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디딤돌 캠프는 신규 임용 예정자 144명이 대상이며 구청 주요 사업 설명, 청렴·복무교육, 친절 스피치, 구청장과 대화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행정시스템 사용법, 공직생활의 비법을 담은 업무 매뉴얼을 배부해 직무 역량을 배양한다.
구청장과 대화에서는 구청목표, 운영방향 등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한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최환준 기자

북구문화센터, 하반기 기획·초청 공연

오늘 '국악, 재즈를 만나다' 등
광주시 북구문화센터는 하반기 다양한 기획·초청 공연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북구의 브랜드 공연 '콘서트 인 북구'가 준비돼 있다.
10일에는 '국악, 재즈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다재다능한 재즈 뮤지션 피트 정과 해금 연주자 모레 등이 결합한 '구각노리'가 관객을 만난다.

이어 다음달 22일 '국악, 이야기를 노래하다' 공연에서는 '모던판소리공작소 촘촘'의 소리와 민요로 구성된 월드뮤직과 연극 등을 감상할 수 있다.
11월 19일에는 일렉트론릭, 재즈, 민요 등 각기 다른 장르의 뮤지션 3인으로 이뤄진 '신노이'가 '코리안 뮤직, 한계를 넘다'라는 주제로 혁신적인 사운드를 선보인다.
이와 함께 특별 초청 공연으로 10월 21

일 광주시립발레단의 '명작 발레 하이라이트 콘서트'가 열리고 북구문화센터의 상주 공연단체인 JS뮤지션스그룹의 재즈 콘서트와 시민 실용음악 아카데미도 예정돼 있다.
한편, 북구문화센터는 지역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들에게 전시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3일부터 '꽃이 된 생(생)'이란 주제의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최환준 기자

생활불편신고센터 '8282' 대표콜 운영

광주 북구는 증가하는 민원 수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활불편신고센터 대표전화(062-410-8282)를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북구는 민선 7기 들어 공원, 인도·도로, 교통시설물, 불법광고물·쓰레기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처리를 위해 28개 동행정복지센터에 생활불편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주민들은 그동안 불편 신고를 구 홈페이지와 해당 동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해왔다.
하지만 기존 방식과 더불어 관할 구분 없는 대표전화를 신설·운영하면서 동행정복지센터 찾기를 힘들거나 인터넷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의 민원 접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구는 생활불편이 신고되는 즉시 소관부서로 연계해 접수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생활불편신고센터는 주민이 요청하는 다양한 생활민원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며 "대표전화 설치된 만큼 앞으로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3년 동안 생활불편신고센터를 통해 총 6만368건의 민원을 접수, 99%인 5만9,843건을 해결했고 나머지는 추진 중이거나 중장기 사항으로 관리하고 있다. /최환준 기자

2021 전남 저작권의 날

전남지역 중소기업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 애로사항 해결하고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전남 저작권의 날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2021 광주 에이스페어에서 함께 해주세요!

2021 광주 에이스페어에서 만나요!

저작권 등록부터 사업화 지원까지 원스톱서비스

- ☑ 저작권 상담 실무상담, 법률자문, 계약서 검토 등 지원
- ☑ 저작권 등록 저작권 등록 비용 지원
- ☑ 저작권 육성 지원 시제품 제작, 홍보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
- ☑ SW관리체계 컨설팅 SW관리방안 컨설팅 지원

퀴즈도 풀고 저작권도 배워요 EVENT TIME

10:00 ~ 17:00	스탬프 이벤트 아래 도장에 찍어주세요!
11:00 ~ 11:30	룰렛을 돌려라!
15:00 ~ 15:30	룰렛을 돌려라!
11:40 ~ 11:50	저작권 인식 개선 OX퀴즈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Jeonnam Information & Culture Industry Promotion Agency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

9.9.목 - 9.12.일 김대중컨벤션센터